

##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교 인구교육의 미래 방향 탐색: 제7차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왕석순<sup>†</sup>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National Curriculum: Focused on the 7th Curriculum through 2015-Revised Curriculum

Wang, Seok-Soon<sup>†</sup>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national-level curriculum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overall status of popul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irections for the future of population education at school were proposed.

Both the 2007-Revised Curriculum and the 2009-Revised Curriculum contain the contents of population education as a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 in the general curriculum influenced by the low birth rate and ageing society, yet not in the current 2015-Revised Curriculum. Furthermore, when the curriculum documents for the ten common subjects corresponding to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proposed by the 7th Curriculum were examined, only 'Home Economics' curriculum at the secondary school level and 'Social Studies'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the secondary school levels adequately reflected the subject goals,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that correspond to those of population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iculum analysis, the following five directions for population education at school are drawn. First, the purpose of population education at school should be stated using gender-neutral terms of 'response to low-birth and aging society' and it has to be emphasized that it is not to intervene in natural childbirth. Second, the subject which deals directly with the goals,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designated as the leading subject for population education. Third, with its inter-disciplinary nature,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able to provide quality contents for convergence education.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policy support to the leading subjects for population education so that more high schools may select the subjects as elective courses. Fifth, teacher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eachers' perceptions on population.

This study asserts that 'Home economics,' which deals with human daily lives, is an optimal subject that can reflect population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real life. To this end, policy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Home economics' so that it may fulfill the mission as a leading subject of population education.

**Key words:** 가정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고령사회(Ageing society), 저출산(Low birth rate), 학교 인구교육(School population education)

---

<sup>†</sup> 교신저자: Wang, Seok-Soon,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5069, Republic of Korea.  
Tel: +82-063-220-2331, E-mail: wangwhite@jj.ac.kr

## I. 서론

인구의 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나타낸 1983년에서 22년이 지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족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임에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억제 방향에서 인구장려의 방향으로 인구사관(人口史觀)을 획기적으로 바꾼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시점까지 1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2005년 당시의 합계출산율이 1.09명이었고,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총 3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매년 2조~7조원씩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출산율이 1.3명(2012년)까지 반짝 상승한 바 있지만, 정작 연 20조원이 넘게 저출산 지원을 하면서부터 출산율이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져서, 통계청의 출생통계에 따르면 2019년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나타났다. 총 152조 8000억원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쏟아 부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규모(Lee, 2018, November 20)이고, 2019년도 저출산 예산은 3조원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 연간 30조원을 넘어섰지만, 출산율은 0.92명에 머물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막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작은 성과조차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인일까? 최근에 여러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단일 요인에 의한 결과이기 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Go, Choi, & Choi, 2012; Moon, Choi, & Kim, 2016). 즉, 1)초혼연령, 출산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요인, 2)고용률이나 소득수준, 교육 및 보육비용 등과 같은 기회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 3)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 의식 등의 개인적인 측면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자녀양육 지원체계의 부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의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들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2016년도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1차와 2차 기본계획과 달리 보육비 지

원 중심에서 벗어나 저출산을 촉발한 보다 근원적인 가치의 문제 즉, 개인이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사회 가치 및 관례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는 ‘가족친화 가치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는 큰 변화를 나타냈다. 이런 변화는 우리사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인구문제를 개인의 가치문제의 결과이기 보다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온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관례들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전체 사회인들이 수용해 온 오랜 사회적 가치와 관례들을 성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가치 변화를 위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저출산 대응의 인구정책에서 가시적인 즉각적인 변화 보다 ‘가치의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에 관심을 두며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 그리고 성인기로 진입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이 학생들의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 그리고 양성 평등의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Hong, Kim, Choi, & Park, 2011; Jun & Oh, 2010; Kim, Kim, & Oh, 2015; Kim, Kim & Song, 2012; Lee, 2012; Park & Chi, 2019; Wang, 2016, June, 2018, November; Wang & Lim, 2014; Wang & Shim, 2019; Yang, 2015)이 축적되면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학교 인구교육도 2005년 10월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여러 사회현안을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지침 자료를 개발하여 고시하는데, 2005년에 개발된 ‘교육과정자료 319; 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에서 학교 인구교육의 큰 변화가 촉발되었다고 사료된다. 이 자료는 맬더스(Malthus)의 인구관으로 점철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여러 교과의 교과서를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보완, 출간하도록 하는 지침 자료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Wang & Jun, 2005)을 제시하였다. 또 현재 인구교육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서 개편 지침 자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 및 목표를 개발·제시하

였다(Wang & Jun, 2006). 여기에서는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기술·가정, 미술 등 6개 교과와 수업 지도 사례를 개발하여, 그 당시의 시점 상 개정을 앞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인구교육의 수업사례를 제시하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문서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탈멜더스(Malthus)의 인구관을 기반으로 한 학교 인구교육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2005년에 함께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몇몇 선행연구들(Cha, 2008; Lim, 2011; Park, 2012; Yoon, 2011a, 2011b, 2012, 2013)은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 등에 반영된 인구교육을 분석하기 위한 교과서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학교교육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을 지향하므로, 몇몇 교과에서 발생하는 인구교육의 실태 분석은 한계가 있다. 즉,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서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즉, 인구교육에서 교육적 접근을 고려할 때는 학교교육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저출산 극복의 관점을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재조명하고 재구성해보며, 교과와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Jeon, 2017).

학교 인구교육은 1962년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을 효시로 제1차 인구교육(1974-1977), 제2차 인구교육(1977-1985)기간을 거치며 전개되어 왔다(Kim & Jo, 1997).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인구교육은 멜더스(Malthus)의 인구관을 기반으로 한 인구교육으로, 현재의 저출산, 고령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인구교육과는 인구관이 정 반대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5년 이후에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관으로 변화한 우리나라의 학교 인구교육의 양상을 교육과정 전반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했다. 또, 교육과정 문서 분석의 결과와 관련 문헌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학교 인구교육은 대학의 인구교육도 포함해야 하지만, 고등교육의 특성상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자율성이 강조되므로 모든 대학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용이하지도 않다. 또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인구교육을 보편적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초등 및 중등학교의 인구교육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구교육포털(<https://pep.mohw.go.kr>)에서 고찰하면, 대학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2011학년도부터 시작되어 그 역사도 비교적 짧고 참여 대학도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인구교육에 초점을 두어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양상을 교육과정 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학교사회에서 인구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II. 관련 문헌 고찰

### 1. 학교 인구교육의 개념

Kim(1977), Choi(1988), Kim과 Jo(1997)의 선행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인구교육은 한국전쟁 이후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억제에 방향에서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1962년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을 효시로 제1차 인구교육(1974-1977), 제2차 인구교육(1977-1985)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었고, 실제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에 도달한 이후에도 인구 억제의 인구교육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Kim & Jo, 1997). 심지어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에도 인구 억제에 관한 철학을 반영한 교과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Wang & Jun, 2006). 따라서 ‘인구교육’이란 용어는 그 방향이 인구 억제 또는 인구 장려의 방향과 관계없이 인구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가치에 관한 교육적 개입의 의미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구교육포털(<https://pep.mohw.go.kr>)에서는, “인구교육이란 인구규모와 구조 및 분포와 인구변동이 사회는 물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구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여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인구교육의 개념을 파악하면, 인구교육이란 출산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출산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구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적 행동 영역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개인적 자유 선택 사항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이미 인간존중의 의미로 인구교육의 정의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2012)의 제7조2(인구교육)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고시하였다. 여기에서도 인구교육은 친가족적 가치관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적 선택의 영역인 결혼 및 출산에 개입하는 교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의미하는 인구교육은 “인구 현상이 개인과 가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하여 인구와 결혼 및 출산, 그리고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으로 종합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인구교육은 교육의 대상을 기준으로 학교 인구교육과 사회인구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어 왔다. 이 때 학교 인구교육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학교인 제도교육을 통해 접근하거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왔고, 사회 인구교육은 일반적으로 미혼남녀, 군인, 직장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기관인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학교인구교육이든, 사회인구교육이든, 교육의 대상자를 구분하거나 고려하는 것은 인구교육으로서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HW], 2012). 따라서 광의의 인구교육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이지만, 학교 인구교육은 그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 실시되는 인구교육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 인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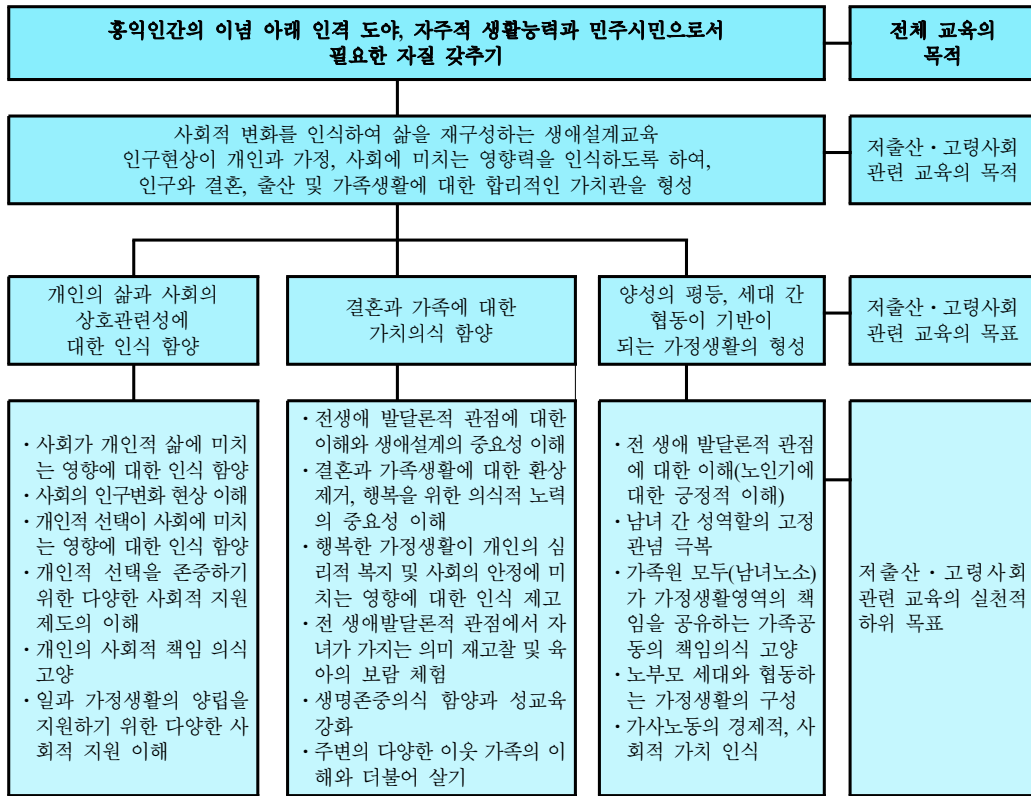
육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 현상이 개인과 가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하고, 인구와 결혼 및 출산, 그리고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 2. 학교 인구교육의 목표와 내용

Wang과 Jun(2006)은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다음의 <Figure 1>과 같이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과 목표는 이후에 학교 인구교육의 내용체계 개발 연구 및 학교 인구교육 교재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되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학교 인구교육의 효시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Wang과 Jun(2006)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의 학교 인구교육은 교육과정 전체의 목적에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생애설계교육”으로 인구교육의 목적을 정의했다. 즉, 현대인의 삶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없이는 단 하루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대사회의 근원적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인식하여, 때로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적 상황의 변인들을 활용하거나 통제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자주적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인간을 키우는 것이 인구교육의 목적으로 설명했다. 또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기’, ‘결혼과 가족의 가치의식 함양’, ‘양성의 평등, 세대 간 협동이 기반이 되는 가정과 사회생활 형성’의 3개 하위목표를 수립하고 하위목표별 구체적인 실천적 하위 목표들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Wang과 Jun(2005, 2006)은 특히 인구교육의 목적이 한국에서 저출산 사회를 촉발시킨 동인(動因)이 된 다양한 제도나 관례,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아를 기르는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와 관습, 가치들에 대해 성찰하고, 만일 여기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딪쳐서 이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려는 데 깨어있는 자아, 즉 ‘enlightened ego’를 기르는 것을 인구교육의 목적으로 강조했다. 깨어있는 자아의 성장을



Source. Restructured from Wang & Jun(2006, p. 58)

Figure 1. Goals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

위한 인구교육은 우리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홍익인간 양성의 교육 이념과 상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Yoon과 Lee(2017b)의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내용 영역과 영역별 목표를 개발하여 제시했다. 이 연구는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내용 영역을 4개의 대영역, 즉 인간존중, 가족, 인구, 복지로 구분했고, 대영역을 다시 중영역 및 소영역으로 세분했다. 중영역인 인간존중 영역에는 인권과 평등을, 가족 영역에는 가족의 의미와 변화, 결혼, 출산과 양육을, 인구 영역에서는 인구변동, 저출산, 고령화를, 복지 영역에는 공적 대비(제도 및 정책), 사적 대비(진로 및 생애설계)를 제시했다.

또,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 도서로 개발되어(MHW, 201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 교재는 인구현상과 인구변동, 생명 존중, 양성 평등, 결혼관, 출산·자녀관, 다양한 가족,

다문화 가정, 고령자의 인생설계, 고령자의 역할, 세대 평등의 10개를 학교 인구교육의 주제로 제시했다<Table 1>.

한편,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인구교육을 융합학문으로 접근하여 내용체계를 구성했다. 인구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 인구와 인구현상을, 윤리학에서는 생명존중과 평등의식, 가족학에서는 다양한 가족과 다문화 가정, 노인학에서는 노화와 노인복지를 인구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했다(Cha & Kim, 2013). 초, 중, 고등학교 인구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Yu(2012)는, 결혼·출산·자녀관, 인구규모·구조·이동,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 고령사회의 세대통합의식 등이 인구교육의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Lee(2014)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 전개된 대학의 인구교육강좌를 실시하는 4개 대학의 강좌분석을 실시하여 5가지를 인구교육의 내용분석의 기준으로 제시했

Table 1. Content elements of population education reflect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population education textbooks

| 영역 | 초등학교          | 중학교        | 영역 | 고등학교        |
|----|---------------|------------|----|-------------|
| 인구 | 인구현상 변화       | 인구현상과 인구변동 | 인구 | 인구와 인구현상    |
| 윤리 | 소중한 생명        | 생명존중       | 윤리 | 저출산·고령화 사회  |
|    |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 양성평등       |    | 생명존중        |
| 가족 | 결혼에 대한 생각     | 결혼관        | 가족 | 양성평등의식      |
|    | 출산과 자녀에 대한 생각 | 출산·자녀관     |    | 결혼관         |
|    | 다양한 형태의 가족    | 다양한 가족     |    | 출산과 부모됨의 기쁨 |
| 노인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노인 | 다문화 가정      |
|    | 고령자의 인생 설계    | 고령자의 인생설계  |    | 고령자의 인생설계   |
|    | 고령자의 역할       | 고령자의 역할    |    | 고령자의 역할     |
|    | 세대 간의 평등      | 세대 평등      |    | 세대 평등       |

Source. Cha & Kim(2012, July, p. 80)

다. 즉, 인간존중(인권, 평등), 인구(인구변동, 저출산, 고령화), 가족(변화하는 가족, 노인), 복지(지원제도, 직업), 인구교육(내용체계 및 교수·학습방법)의 5가지이다. 그런데 대학의 인구교육 교재에서는(MHW, 2012), 인구변천과 인구문제의 이해, 저출산과 한국사회, 고령화 사회와 노년의 정치화, 결혼, 가족, 가족가치, 국제결혼과 다문화사회, 인구정책 등의 6개 대영역을 인구교육의 내용요소로 제시하여, Lee(2014)의 연구와 내용요소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인구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초기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한 Wang과 Jun(2006)의 연구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급 별 인구교육의 영역이나 내용요소는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어서, 학교 급 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구교육의 목적에 적절하게 내용체계를 재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발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인구교육 교재를 분석하면, 다루는 내용요소가 대동소이해서 단지 내용의 깊이와 범위를 달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모든 학습 대상자에게 동일한 인구교육의 내용요소 전부를 다루기보다, 학습자의 생애 발달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 학교 급 별로 내용요소를 차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아동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생명 존중과 친구관계에 기반을 둔 내용요소에 중점을 두고, 사춘기가 최절정에 이르는 중학교에서는 생명존중은 물론이고,

이차성징 발달에 따른 이성 친구관계 형성하기 및 책임 있는 성교육에 방점을 두어 내용요소를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또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상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발달이 궤도에 오르는 고등학생은 인구의 사회적 의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형성, 이웃인 다양한 가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성인기의 학습자인 대학생의 경우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신의 전공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을 구안해 보거나, 자신의 주변인에 대한 이해 및 복지의 실천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에 초점을 두는 학교 인구교육의 내용요소에 대한 심화된 고찰이 필요하다.

###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교육과정 내용분석 및 선행 연구 고찰의 방법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들(Cha, 2008; Lee, 2015; Lee & Yoon, 2008; Lim, 2011; Park, 2012; Yoon, 2011a, 2011b, 2012, 2013; Yoon & Lee, 2016, 2017a; Yoon, Lee, & Lee, 2016)은 학교 인구교육을 파악하기 위해 교과서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전반에서 전개

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의 학교 인구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보다 교육과정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사료된다. 또 가정 교과나 사회교과와 같이 어느 1개의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구교육을 분석하면(Lee, 2015; Lim, 2011; Park, 2012), 교육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어떤 1개 교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교육과정에 반영된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에 임하였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문서 분석을 실시한다. 학교 인구교육은 맬더스(Malthus)의 인구관을 중심으로 한 인구 억제 방향의 인구교육에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에 교육부의 교육과정자료인 ‘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기점으로 그 방향이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관을 바탕으로 한 인구교육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2005년 이후인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기로 1차 판단했으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를 지향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기본적 체제와 철학을 공유하므로, 인구단원 내용에 있어서 질적 변화가 많은(Lim, 2011) 제7차 교육과정까지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육과정 전반을 다루는 ‘총론 교육과정’과, 교과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각론 교육과정’이 있다. 이에 총론 교육과정과 각론 교육과정 문서를 모두 분석하되, 각론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10개 교과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도덕, 기술·가정(초등실과 및 중등 가정과), 체육, 음악, 미술의 10개 공통 교과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초, 중, 고의 인구교육은 <Table 1>에서 제시한 인구교육 교재에서 다루는 10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제들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에서만 아니라, 맬더스의 인구관을 기반으로 한 인구 억제를 강조하는 인구교육에서도 다루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

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을 방향성으로 하는 학교 인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서 분석의 키워드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 분석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저출산’과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 설정했고, 이 키워드가 초등 및 중등의 교육과정 총론 및 국민공통기본교과에 해당하는 10개 교과의 초등 및 중등의 각론 교육과정 문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했다.

한편, 교육과정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메뉴에서, 각 해당 시기의 문서를 찾아, 키워드인 ‘저출산’과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교육과정 시기별로 또 교과별로 모두 분석했다.

한편, 교육과정 분석 결과는 초등교사 1인 및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 1인, 그리고 초등 및 중등의 가정교육학 전공 교수 각 1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 IV. 저출산, 고령화 대응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 분석 결과

### 1. ‘총론’ 교육과정 분석 결과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은 2005년 발행된 교육부의 교육과정 운영자료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Wang & Jun, 2005)을 기점으로 맬더스(Malthus)식의 인구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방향으로 크게 변화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5년 이후의 교육과정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교육과정에 어떤 방향의 학교 인구교육이 전개되었는가를 분석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은, 인구관이 변화한 2005년 이전 시기에 해당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는 공통의 편제 및 철학을 공유하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따라서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Table 2.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ubject topics across the curriculum

| 제7차<br>교육과정(1997.12)  | 2007 개정 교육과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 2015 개정<br>교육과정   |
|---|---|--|---|
|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 |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산·고령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b>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b> ,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Note. Restructured from Wang(2018, November, p. 20)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등 총 4개 시기의 교육과정 총론 문서를 분석했다. 총론 교육과정 중 ‘범교과 학습내용’은 모든 교과와 수업과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중요한 지침이다. 따라서 총론 교육과정 분석에서는 ‘범교과 학습내용’에 ‘인구교육’이 반영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의 결과와 같이 2005년 이전의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육’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육’이 범교과 학습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내용’이 ‘범교과 학습주제’로 명칭이 변화했는데, 국가 현안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육’이 범교과 학습주제에서 누락되었다. 오히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육’에서 내용체계의 하나로 다루는 ‘다문화교육’이 범교과 학습주제로 반영되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육’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 체계인지 또는 ‘다문화교육’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 체계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이며 국가 현안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육’을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교육과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 인구교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인구교육이 축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각론(교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

교육과정 문서상의 편제표를 중심으로 보면, 학교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과 ‘교과 교육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과 활동에서 전개되는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각 교과 교육과정 문서상의 항목 중 ‘교과의 성격 및 목표’, ‘내용요소’,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문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교과 교수·학습의 목표인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관이 반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결과를 보면,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요소’ 또는 교과 교수·학습의 기준이 되는 ‘성취기준’ 수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를 다룬 교과는 없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 각론 문서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과의 ‘교과의 성격’과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범교과 학습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및 ‘고령사회’를 가정과 영역의 수업에서 강조하여 다루도록 고시하였다. 또 사회교과는 중학교 7학년 지리영역의 ‘내용 해설’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각론 교육과정 개정이 2011년에 고시되었는데, ‘내용요소’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는 교과는



Table 3. Inclusion of 'low-birth' and 'ageing society' in the curriculum

| 시기                     |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교육내용 반영 결과  |
|------------------------|--|
| 제7차 교육과정               | 해당 결과 없음   |
| 2007 개정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성격<br/>“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 등 전반적인 가족 관계가 변화하고 있어 가정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li> <li>- 중학교 가정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마항.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 등 범교과 영역에 대해 관련 영역과 내용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br/>(1) 저출산 및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가정의 의의와 역할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가정의 일과 직업과의 상호 관련성 및 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양성 평등한 가족 역할 분담 등 올바른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 중학교 7학년 지리영역의 내용해설<br/>“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p>   |
| 2009 개정 (2011 개정)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의 가정영역에서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으로 반영<br/>○ <b>저출산·고령 사회와 가족·사랑과 결혼 / 부모됨과 자녀 돌봄 / 자립적인 노후생활</b><br/>성취기준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는 결혼과 가족, 부모됨의 개인적·사회적 가치, 부모 됨 및 돌봄의 실천적 능력을 함양하며, 고령사회에서 자립적 노후생활을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li> <li>- 중학교 기술·가정의 가정영역에서는 성취기준으로 반영<br/><b>‘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의 성취기준으로</b> “저출산·고령 사회, 다문화 사회의 도래 등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 형태, 기능, 가족생활주기, 가족가치관 및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양성평등 및 세대 간의 조화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로 고시함</li> </ul>  |
| 2015 개정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가정 영역의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으로 반영<br/>• 저출산·고령사회와 일·가정 양립<br/>[9기개3-06] 저출산·고령 사회가 개인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가족 친화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한다.</li> <li>-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영역 성취기준으로 반영<br/>[12기개01-04]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의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 중 생활 방안을 탐색하여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li> <li>- 고등학교 ‘사회문화’의 내용요소로 반영<br/>•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적 변화</li> <li>-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의 내용요소로 반영<br/>•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li> <li>-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 반영<br/>[4사04-05] 사회 변화(저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br/>[9사일사12-02]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이해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다문화적 변화 등에 대해 파악한다.<br/>[10통사09-01]에서는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인구 이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저출산·고령화, 인구 과잉 등 지역별로 다양한 인구 문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잠재 성장률 유지를 위한 인구 정책의 필요성, 세대 간 정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다루도록 한다.<br/>[12한지06-02]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와 이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li> </ul> |

Note. Restructured from Wang(2018, November, p. 21)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영역이 유일하다. 또,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가정영역에서는 교과의 교수·학습의 기준이 되는 ‘성취기준’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육’을 반영하고 있다. 가정과교육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항목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구교육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교과는 기술·가정교과의 가정과교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요소 항목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을 반영한 교과는, 중학교는 공통과목인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과교육 분야,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회교과의 선택과목인 ‘사회문화’ 및 ‘사회문제탐구’ 과목이다. 또 교과 교수·학습의 기준이 되는 ‘성취기준’에 반영된 교과는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인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과교육 분야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사회교과’이다.

<Table 3>에서 보듯이, 학교 인구교육은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과교육 분야(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와 사회교과의 지리교육 분야(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일반사회교육과 통합사회 분야(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Cha, 2008; Lee, 2015; Lee & Yoon, 2008; Yoon, 2011a, 2011b, 2012, 2013, 2015; Yoon & Lee, 2016, 2017a; Yoon, Lee, & Lee, 2016)에서는 가정과교육 및 사회과교육, 도덕과교육을 학교 인구교육의 주요한 교육의 분야로 언급했는데, 교육과정 문서 분석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성취기준이나 내용요소를 도덕교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 <Table 1>에서 제시한 학교 인구교육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인구교육의 구체적인 주제 또는 Yoon과 Lee(2017b)가 구체화한 인구교육의 내용체계를 분석 기준으로 판단하면, ‘인간존중’의 주제가 도덕교과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존중의 가치는 언제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저출산 및 고령화를 반영한 인구관(人口觀)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따라서 도덕교과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방향으로 한 인구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룬다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편, 사회교과에서 다루는 인구교육은 우리나라 사회변동의 측면에서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성취기준을 분석하면 학습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을 파악하여, 인구변화로 나타날 문제와 해결방안을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인구분포와 구조의 측면, 공간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Table 3>.

마지막으로, 가정과교육에서 수행하는 인구교육은 우선, <Table 1>의 학교 인구교육 교재의 10개의 주제 및 Yoon과 Lee(2017b)가 구체화한 인구교육의 내용체계 전반을 교과 전반에서 두루 다루고 있다. 특히 가정과교육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구 교육은 <Table 3>에서 보듯이 사회의 인구 현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의 시민으로서 바람직한가를 사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로 나타나게 될 다양한 가치의 문제들, 예로 저출산의 인구문제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가치와 ‘양성 평등’의 가치를 학습자가 경험하는 매일의 생활인 가정생활에서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결책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를 이해하도록 하면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도록 학습시키고 있다. 특히 인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인 친가족 가치관의 향상에 기본적인 여러 내용을 교육과정 전반에서 내용요소 항목으로 다룬다. 즉,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사랑과 결혼 및 양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관계형성의 기술을 직접적인 내용요소로 다루고 있다. 또 이 모든 내용요소를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친숙한 개인 및 가정생활의 실제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교과 학습에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술·가정교과의 가정과교육 분야와 사회교과는 모두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방향으로 하는 학교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교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교 인구교육은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삶을 어떻게 구성해 가야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인구교육은 학습자의 삶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삶의 교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삶의 구성에 기여하는 것을 직접적인 교과의 목표 및 성취기준으로 하는 대표적인 교과는 가정교과이다(Wang, 2016). 물론 인구교육은 사회교과에서도 수행하고 있지만, 학교 인구교육을 학습자의 삶이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다 가치 지향적이며, 실천적인 생활교육, 삶의 교육, 또는 인생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학교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서의 사명을 가정교과에 임파워먼트(empower-ment)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학교 급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대학 입시와 관련되지 못한 교과는 학교현장에서 그 선택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편제를 필수교과인 ‘공통과목’과 필수 이수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선택과목’ 및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제하고 있어, 교과의 필수 이수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런데,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구교육을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와 사회교과의 ‘사회문화’와 ‘사회문제탐구’ 과목은 모두 선택과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행의 고등학교 학교 급에서는 학교 인구교육이 총론 문서와 마찬가지로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오히려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들보다 상당히 퇴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제언으로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내용 분석의 자료로 선정하였고, 분석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저출산’ 과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 4개 시기의 교육과정 총론 문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론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이 ‘범교과학습주제’에 반영되어 있지 못했다. 각론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0개의 공통 교과와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7차 교육과정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련한 내용요소가 성취기준 등의 교육과정 문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중등의 기술·가정교과와 가정과교육 분야, 그리고 초등과 중등의 사회교과에서만 교과의 목표, 또는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 등의 교육과정 문서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상의 학교 인구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 결과에 터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 인구교육의 분명한 목적을 확인하여, 이후의 학교 인구교육에 적용한다.

인구교육의 용어에서 정의하듯이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출산의 방향에 개입하기 위한 교육, 즉 자녀를 많이 낳아라, 또는 과거의 적게 낳아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들과 마스크, 심지어 인구정책의 행정가들조차 인구정책은 예전의 출산억제 정책과 반대 방향의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오(誤)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오개념이 인구교육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와 다르

게 현대사회에서 출산은 도덕적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한 선택의 영역이다. 어느 누구도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구교육은 개인이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저출산의 사회를 촉발시킨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관습과 제도, 특히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것들을 개선되어야 할 모습으로 바꾸고 개혁하는 데 ‘깨어있는 자아’를 기르는 것이 목적(Wang & Jun, 2006)인 가치 교육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저출산 사회를 촉발시킨 우리 사회의 오랜 사회적 관습들과 가치에는, 여성들의 독박육아의 문제를 촉발시킨 여성에게 양육과 가정생활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는 성별 노동분리의 사회적 관습, 남성이 울어서는 안 된다는 등등의 여러 성 고정관념적 생각들, 결혼과 가정생활의 부정적 측면만 과장시킨 잘못된 신화들(Myths),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않는 핵가족만의 정상가족 신화 등이 해당한다(Wang & Jun, 2006). 실제 이같은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원인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저출산’의 용어이다. 저출산은 ‘low birth rate’로 출생률(birth rate)이 낮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birth는 출생, 탄생으로 더욱 많이 번역되는 용어이지만 유독 인구와 관련한 용어에서만 출산으로 번역되고 있다. 특히 출산의 선택과 과정에서 여성과 동등하게 중요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용어에서 내포하지 못한다. 즉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여성의 출산행위로만 해석될 가능성이 큰 용어이다. 이처럼 출산이라는 용어는 출산행동에서 해야 하는 남성적 역할과 책임을 희석시키는 성중립적이지 못한 성차별적 용어라고 사료된다. 성중립적이지 못한 용어는 인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동안 저출산 문제를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파업의 결과로 분석하거나, 그래서 출산력을 가진 여성의 분포지도를 만드는 등의 매우 성차별적 해법을 쏟아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따라서 우선 학교 인구교육에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의 변화부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학교 인구교육에서는 저출산 보다는 ‘저출생 대응 인구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Wang & Shim, 2019).

또, 2018년에 우리나라가 이미 65세 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기대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점이므로 인구교육은 초고령사회를 인식하도록 하는 교

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인구교육의 내용도 인생 후반기의 생활을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인구교육은 ‘저출생·초고령사회 인식’의 교육으로 재개념화하는 것이 학교 인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을 사회와 관련시켜 나타내면 다음의 <Figure 2>와 같다.

둘째, 학교 인구교육은 공통교육과정에서 적용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우선적으로 10개의 교과 모두에서 반영하도록 하되,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과 수업 또는 사회교과와 같이 교과의 성격상 교육과정에서 인구교육의 여러 내용체계를 다루는 교과를 주도교과로 임파워먼트(empowerment)한다.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총 10개의 교과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 교육과정에 반영된 10개 교과 모두에서 교과시간에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교육’이 다루어질 때, 학교 인구교육의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교과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교과가 설정한 교과의 목표 달성에 1차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데에는 교과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 분석 결과에서 지시하듯이, 교육과정의 내용요소나 성취기준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육의 내용요소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교과를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 설정하여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실과교과 및 중학교의 기술·가정교과의 가정과 수업, 또는 사회교과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주도교과에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교육’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수 확보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인구교육은 ‘범교과 학습주제’로 선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적극 활용하며,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과별 융합수업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이상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고찰하면,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였다. 학교 인구교육은 간학문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루기에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 따라서 학교 인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반영되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이 가장 표현되는 교육과정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인구교육이 적극 발생할 수 있도록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자유학기제와 교과 간 주제 통합 융합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 관련 교육의 내용이 매우 좋은 교육소재가 될 수 있다. 인구교육은 가정, 사회, 도덕 등의 교과는 물론, 수학과 국어 교과 등이, 또는 미술이나 음악 등의 교과 등과 인구교육의 주도교과가 중심이 되어 융합수업을 하기에 매우 좋다. 따라서 학교 인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 간 융합수업과 중학교 시기의 자유학기제에 저출생·초고령사회 관련 교육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한다.

넷째,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공통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되는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한 지도와 정책이 요구된다. 즉, 고등학교 단계가 종결 교육이 될 수 있는 여러 학습자들이 학교 인구교육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도 사항으로 인구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이상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고찰하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서는 인구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과 수업’이나 사회교과의 ‘사회문화’ 과목의 선택이 어려운 것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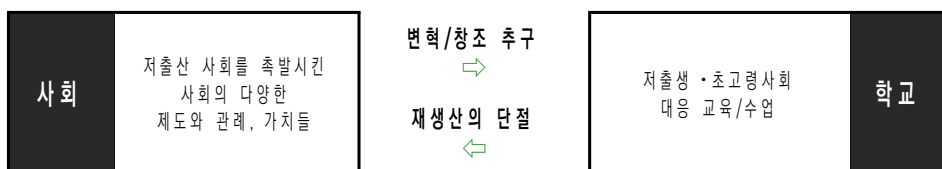


Figure 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instruction / education for low-birth and super-aged society

이다. 따라서 국가 현안인 인구문제를 교과와 목표와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으로 다루는 교과의 선택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인간의 수명이 60세 또는 70세에 머무는 사회에서의 교육과, 100세의 수명을 넘어 가는 21세기 사회, 더구나 대부분의 필요한 기초지식을 기술문명의 혜택으로 폭넓게 자동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초고도의 기술문명 사회에서의 교육은 동일해서는 안 된다. 100세 이상의 삶에서 당연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역량, 그리고 100세 이상의 삶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교양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택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논의되어야 할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알파고의 선풍으로 우리 사회는 기술교육이나 코딩교육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도로 발전된 기술문명 사회는 제도화된 일터에서 개인을 해방시키게 될 것이기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개인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Wang, 2016a).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인구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잘 함의하여 개인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즉, 인구교육은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살도록 지원하는 근본적 필요성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과목 자율 이수 및 선택을 보장해주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되, 불균형적으로 상급학교 입시에 유리한 교과목 이수만으로 기우는 선택이 아니라, 보다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의 교과목들이 이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 행정직 및 전문직, 그리고 학교의 교원들이 먼저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 실현에 대한 인식을 지녀야 하며, 교육의 모든 부문에서 인구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 학교 인구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한다.

교육자들 자신이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의식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학교 교육에서 인구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무엇보다도 교육자 자신이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Cha & Kim, 2013). 교육 행정직 및 전문직, 그리고 교원들이 학교인구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한 명확한 인식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단계에서부터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학교 인구교육을 체계적으로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부터 시행해 온 교원양성기관이 있는 대학을 기반으로 시작한 대학 인구교육 강화 지원 사업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Wang, 2016, June, 2018, November).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을 둔 대학에서의 인구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의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또, 모든 교원 자격 연수과정 및 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학교 인구교육의 과목을 개설되어 교원의 인구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함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학교 인구교육을 위한 수업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선도 교과의 교사들에게 담당 수업 시수의 감축, 연구비의 보조 등과 같은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 시기부터 학생들에게 친가족적 가치관과 올바른 인구관을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가치관 형성은 대체로 초, 중, 고등학교 등 어린시기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구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인구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Cha, 2008). 그러나 인구교육은 당장의 출산율 제고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단지, 인구교육은 미래의 출산을 견인하게 될 학습자들의 근원적인 사고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인구문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개인이 국가사회와의 관계에서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교육적 차원의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인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 특히 학교 인구교육은 교육과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인구교육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과, 특히 인구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도 교과인 가정과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에서의 입지 강화가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멜더스의 인구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인구관으로 인구교육이 변화한 것을 파악하고, 학교교육의 중심

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학교 인구교육을 주도할 교과를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구교육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인구교육 교재의 주제나 인구교육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학습자료인 교과서를 기준으로 여러 교과의 교과서를 인구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또, 학교 인구교육은 초등 및 중등학교 뿐 아니라 발달주기상 결혼과 출산의 성인기로 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학 인구교육의 실태 분석은 포함하지 못했다. 이후 연구에서는 인구교육의 내용요소를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과 대학 인구교육의 효과성 분석, 대학생 대상 인구교육의 내용요소 분석, 대학생 대상 인구교육의 교수방법 구안 등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Cha, W. K. (2008). The new directions of one's values education in the low childbirth · aged socie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1(1), 107-131.
- Cha, W. K., & Kim, T. H. (2012, July). *인구교육의 성과와 발전 방향 [Population education performance and development direction]*. Paper presented at the 1st Population Day Memorial Conference, Seoul. Retrieved from <https://pep.mohw.go.kr/>
- Cha, W. K., & Kim, T. H. (2013).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Development of standard curriculum for the training of population education exper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6(1), 69-84.
- Choi, S. I. (1988). 사회과교육에서의 인구문제 [Population problems in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1, 79-101.
-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ct No. 11444, (2012).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W/eng/engLSc.do?menuId=2&section=lawNm&query=11444&x=0&y=0#libGcolor0>
- Go, J. Y., Choi, S. I., & Choi, I. S. (2012). *경기도 시군 출산환경지수 개발 연구 [Gyeonggi-do Sigun Fertility Environment Index Development Research]* (No. 2012-21). Suwon: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 Hong, H. S., Kim, M. Y., Choi, Y. H., & Park, W. J. (2011). The effect of population education programe on values of marriage, childbearing and gender equality among unmarried yout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rternal and Child Health*, 15(2), 152-165.
- Jeon, S. K. (2017). Exploring the causes and overcoming of low fertility in terms of family culture and valu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4), 85-100. doi:10.19031/jkheea.2017.12.29.4.85
- Jo, G. W., Lee, J. Y., & Jeong, Y. L. (2017). *전라북도 출산환경지표 개발 및 정책활용 방안 [Development of fertility environment indicators of Jeollabuk-do and policy utilization plan]* (No. 2017-JU-09). Jeonju: Jeonbuk Institute.
- Jun, M. K., & Oh, K. S. (2010). Education and application for low fertility · aged society in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95-116.
- Kim, G. R., & Jo, H. J. (1997).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본 인구교육의 분석 [An analysis of population education based on Korean high school textbooks]. *Education Research*, 21, 89-112.
- Kim, H., Kim, I., & Oh, W. (2015). A study of the perception of a preschool child's mothers on childbirth promotion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factors influencing their perception of childbirth promotion education.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4(3), 195-218.
- Kim, M.-Y., & Song, Y. (2012).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03-311.
- Kim, N. S. (1977). Educational counterplans for population problems.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9(1), 111-115. Retrieved from <http://crdcnu.jnu.ac.kr/>
- Lee, D. H. (2018, November 20). 저출산 예산 13년간 143조원 다 어디에 썼나... [Where has the budget for the low brith rate gone?: 143 trillion won for 13 years...]. *Hankookilbo*.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

- Lee, G. S. (2012).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a low fertility society by community involvement, public policy participation, and advocac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1), 73-84.
- Lee, M. R., & Yoon, I. K. (2008).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population in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with low birth rate to the revised 7th (Ethics, Social Studies and Practical Arts (Technology & Home Economic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1(1), 133-152.
- Lee, S. J. (201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organization of 'population education' lectures for low birth rate and aged socie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2), 469-486.
- Lee, S. J. (2015). Application of population education in 2015 revised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Focused on home economic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8, 49-67.
- Lim, I. M. (2011). Changes in contents of the field of population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of middle school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4(1), 41-6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Population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pep.mohw.go.k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중·고등학교 인구교육 교재) [A happy world together (middle and high school population education textbook)]*. Seoul: Human Culture Arirang.
- Moon, J. H., Choi, C. R., & Kim, H. J. (2016).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구축 방안 [A study on the childbirth-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s]* (No. 2016-2). Busan: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 Park, S.-Y., & Chi, H.-S. (2019). A case study on mural painting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Journal of Art Education*, 56, 133-169.
- Park, Y. K. (2012). A content analysis of popul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s. *Journal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 20(2), 1-18.
- Wang, S. S.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ed with the future social change: Focusing on the new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 as the subjects for life and happin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3), 17-32. doi:10.19031/jkheea.2016.09.28.3.17
- Wang, S. S. (2016, June). *대학 인구교육 강좌개설 운영 개선방안 전주대학교 운영 사례의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university's population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2016 Population Education Forum, Cheongju. Retrieved from <https://pep.mohw.go.kr/>
- Wang, S. S. (2018, November). *학교인구교육의 오늘과 내일 [Today and tomorrow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2018 Population Education Forum, Daejeon. Retrieved from <https://pep.mohw.go.kr/>
- Wang, S. S., & Jun, M. K. (2005). *The instructional methods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For the uses of teacher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Wang, S. S., & Jun, M. K. (2006).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revision manuals*.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Wang, S. S., & Lim, Y. M. (2014).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4), 147-164.
- Wang, S.-S., & Shim, J.-Y. (2019).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opulation problems of male and female students using text-mining: To drive the implications of populatio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3), 73-90. doi:10.19031/jkheea.2019.09.3.1.3.73
- Yang, J. S. (2015).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affecting work-family balance and the childbirth decision of working wiv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4), 613-630. doi:10.13049/kfwa.2015.20.4.613
- Yoon, I. K. (2011a). Analysis of the contents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 -In moral subject, social study and technology · home economic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4(1), 19-39.
- Yoon, I. K. (2011b). Analysis of the contents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 2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moral subject and social studi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4(2), 1-18.
- Yoon, I. K. (2012). Analysis of the contents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 3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moral subject and social studi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5(1), 49-69.

Yoon, I. K. (2013). Analysis of the contents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 4 -In the textbook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moral subject and social studi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6(1), 1-22.

Yoon, I. K. (2015).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population education in high school textbooks of home economics scienc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8, 69-89.

Yoon, I. K., & Lee, S. J. (2016). A content analysis of population education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science’ textbook: Focused on content system in population education (2015).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9, 1-23.

Yoon, I. K., & Lee, S. J. (2017a). A content analysis of population education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science’ textbook: Focused on content system in population educa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10(1), 39-60.

Yoon, I. K., & Lee, S. J. (2017b).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al contents for low birthrate & aging socie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10(1), 61-81.

Yoon, I. K., Lee, S. J., & Lee, M. (2016). A content analysis of population education in ‘human development’ textbook of specialized high school: Focused on content system in population education(2015).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9, 25-48.

Yu, J. Y. (2012). The actual condition and tasks of teachers’ population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2), 339-362.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 인구교육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총론 및 각론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더하여 학교 인구교육의 미래 방향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총론 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각론 교육과정 분석의 결과(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0개의 공통 교과 교육과정 문서 분석함), 중등의 기술·가정교과와 가정과 교육과정, 그리고 초등 및 중등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만 교과의 성격이나 목표, 또는 내용요소나 성취기준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5가지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은 출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양성평등한 용어를 적용한다. 둘째, 인구교육을 교과의 목표와 내용요소, 그리고 성취기준으로 직접 다루는 교과에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서 사명을 부여한다. 셋째, 융합학문적 특성의 인구교육을 융합교육의 적극적 소재로 활용한다. 넷째,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인구교육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주도교과의 선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 다섯째, 교원의 인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교육을 강화한다.

민주시민의 역량은 사회의 기본적 집단인 가족의 사회화를 통해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과교육에서 인구교육을 주도하여 삶, 즉 생활과 연계된 실천적 인구교육으로 학교 사회에 인구교육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서의 사명을 가정과교육에 맡겨서 이를 잘 수행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의 이수를 강화시키는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자: 2020년 5월 31일, 논문심사일자: 2020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6월 29일



## 〈부록〉

- Ministry of Education (1997). *별책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Separate volume 1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1997-15).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5). *별책10 - 실과(기술가정), 정보과 교육과정 [Separate volume 10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formatics curriculum]* (No. 2015-74).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5). *별책7 - 사회과 교육과정 [Separate volume 7 -Social studies curriculum]* (No. 2015-74).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5). *별책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2015-74).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별책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Separate volume 1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2007-79).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별책10 -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Separate volume 10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No. 2007-79).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별책7 - 사회과 교육과정 [Separate volume 7 -Social studies curriculum]* (No. 2007-79).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별책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Separate volume 1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2009-41).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별책10 -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Separate volume 10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No. 2011-361).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2020). *우리나라 교육과정 [The curriculum of Korea]*. Retrieved from <http://ncic.re.kr/>